



제1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룡의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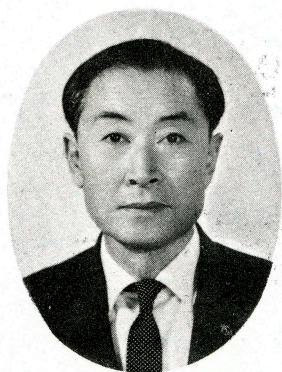
=애원성=

일시 : 1972. 10. 20.

장소 : 대전공설운동장

함 경 북 도

全国民俗芸術競演大会 出演에 즈음하여



예로부터 내려온 民俗藝術은 그 時代의 民族性和 生活狀態를 表現한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 祖上들의 生活은 現代人の 마음의 故鄉이 아닐 수 없으며 이와 같은 藝術을 通하여 故鄉과 先祖를 崇尚, 追慕하게 되며 또한 失郷民으로서의 흥금을 慰勞 激勵하는 뜻도 되는 것이다.

지난 1971年 第12回 全国民俗藝術競演大会에 咸北 固有의 民謠로서 「哀怨聲」을 出演시킨 바 있으며 今年 또다시 本大会에 哀怨聲은 물론 새로이 「海龍의 노리」를 가지고 出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道의 固有의 民俗노리와 民謠를 研究하고 發掘하며 더욱 發展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本大会에서 그 芸能을 充分히 발휘하여 줄 것을 바라 마지 않는 바이다.

함북민속문화진흥협회장

李 軒 求

해룡가 유래

홍해룡은 함경북도 특히 해안지대에 류포 되었던 전설적 인물로서 해중인 용궁 연화당에서 인간 세상에 나온다면 기골이 장대하며 그 뛰어난 젊음과 용기와 활랑기질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칭송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가 다니는 길, 그가 행하는 일, 그 모두가 신기와 변화를 이르는 능력을 나타내었다고 해서 특히 단오절 같은 명절때면 창포에 감은 머리 곱게 단장한 여성들이 즐겨 불러 그 하나의 전설이 노래로 불리워 전해지고 있다.

홍해룡의 노래

1. 해룡아 해룡아 홍해룡아
연화당 속에서 놀다가세
해룡이 총각이 다니던 길은
좁던 길도 넓어지고 넓던길도 좁아진다
후렴 : 에헤야 에헤야 해룡이 왔구나
오월 단오날에 해룡이 왔구나
2. 해룡아 해룡아 홍해룡아
꿈속에 그리던 우리 님아
오월이라 단오절 그네뛰며
해룡총각 환한 얼굴 보고지고 보고지고
3. 해룡아 해룡아 홍해룡아
산호주 한아름 안고 왔나
이 동네 저 동네 노아주고
오늘밤이 다 새도록 놀다가세 놀다가세
4. 해룡아 해룡아 홍해룡아
물에서 노이면 장군이요
바다에서 노이면 용왕이라
활랑총각 해룡이요 해룡총각 활랑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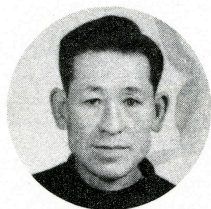
애원성 유래

애원성(哀怨聲)은 예로부터 함경도 지방에서만 내려온 민요로서 주민들이 흰 옷을 입고 천신 지신에게 제사 하며 감사하고 여러가지 소원이 성취되도록 애원한 노래로 되었다.

지리적으로 농경지가 협소하고 농토가 비옥하지 못한데다가 오랜 여진족과의 싸움에 시달렸으며 더우기 사회당쟁의 제물로 유배당한 유랑민과 이조 말엽으로 부터 왜정에 이르기까지 학정에 시달려 국경을 넘어 “로시아” 북간도지방에 이주하는 실정에서 이 노래로 자위하고 상호 격려하며 슬픈때나 즐거울 때 널리 불러 내려오고 있다.

애 원 성

1. 백두산꼭대기에 칠성단 묻어놓고
아들 딸 낳기만 바랄이로구나
(후렴) 에헤 ~ 에헤야 열사마
종구 좋다
얼렷렷 거리고 상사디야
2. 산아 산아 에루화 동대산아
부모님 형제겐 이별 산이로구나
(후렴)
3. 풍년이 왔다고 부르지 말어라
이 물을 건너면 월강죄란다네
(후렴)
4. 무산령 넘어에 정든 안간(부인)
두고 무만강 뗏목에
이내몸 실었네
(후렴)
5. 부령 청진 간 낭군은
돈벌이 갔구요
북망산천 간 낭군은
영 이별이로구나
(후렴)
6. 술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추고
돈 없는 천지에 영웅도 우노나
(후렴)
7. 오늘밤은 그 얼마나 갔는지
북두칠성이 앵 돌아졌네
(후렴)
8. 해삼위 항구가 그 얼마나 좋길래
신개척이 찾아서 반 붓따리 썼네
(후렴)
9. 마우재(소련사람) 양지전(소련돈)에
정들번 하다가 왜놈의 권연지에
몽땅 속았구나
(후렴)
10.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정든님 없으면 적막강산이라
(후렴)
11. 가지를 마오 갈 생각 마오
동대산 바람은 이별 바람이오
(후렴)
12. 북간도 찬바람 네 불지 말아라
우리네 독립군 손발이 다 언다
(후렴)
13. 한반도 강산에 전선줄 느리더니
큰 오래비 간곳이 뚱뚱지로구나
(후렴)
14. 삼천리 강산이 넓다고 하지만
우리네 살곳은 함경도 뿐이다
(후렴)
15. 갈적에 엿어보니 개가 켄 짓고
울적에 다시 보니 새벽달기 우노나
(후렴)



차 종 담(59)

성진 출신
창·춤



최 난 철(45)

경성 출신
창·춤



이 이 순(64)

성진 출신
창·춤



전 춘 순(39)

명천 출신
창·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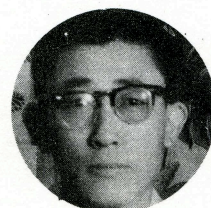
전 채 금(53)

경성 출신
창·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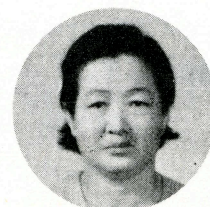
김 옥 진(54)

경흥 출신
창·춤



이 낙 희(56)

청진 출신
단소·춤



이 길 복(57)

경성 출신
창·춤

박 순 선(60)

성진 출신
창·춤

차 금 순(61)

성진 출신
창·창고·춤

이 채 단(56)

경성 출신
창·춤

채 용 문(55)

경원 출신
창·춤

축

함경북도민회

회장 金 喜 鍾

54 - 9 1 3 2

후 생 일 보 사장 金 衡 翼
28 - 6 9 4 6

동 성 병 원 원장 呂 聖 洙
72 - 4 2 9 3

성북병원 · 혈액원 원장 楚 德 松
미아리 대지극장 옆
99 - 5 2 2 5

한일보이라공업사 사장 馬 興 松
28 - 0 4 7 4

대 영 상 사 사장 全 龍 範

조선일보사 대전지국

지부장 李 始 鎬